

10·20대, 영화·게임으로 익숙... 기업 상술 더해 '증폭'

2000년대 놀이공원 등지에서 확산...2010년대 후반부터 문화 자리잡아
광주서도 핼러윈 테마 행사·축제 쏟아져...장식·소품 파는 가게도 급증

'핼러윈' 어떻게 국민축제 됐다

미국인들의 축제로 잘 알려진 '핼러윈'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끈 건 채 10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핼러윈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였다. 영어 교과서에서 간략히 언급되거나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체 행사를 여는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핼러윈은 2000년대 후반 외국인 밀집한 서울

이태원과 놀이공원 등지에서 각종 핼러윈 테마 상품을 내놓으면서 차츰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이후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어느덧 10·20대 젊은이들은 핼러윈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원어민 교사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매체를 통해 외국 문화를 쉽게 접했던 만큼 익숙한 문화가 된 것이다. 연예인들이 핼러윈 분장을 하

고 파티에 참가하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인기에 한 몫을 했다. 최근에는 영어 유치원이나 키즈 카페 등에서도 핼러윈 의상을 입고 사탕과 과자를 나눠먹는 '핼러윈 파티'를 열고 있어 이 문화를 접하는 연령층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식품업체나 관광업계, 지역 상인들도 핼로윈 테마로 꾸민 상품이나 행사, 축제 등을 쏟아내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핼러윈은 '공포 테마로 꾸며진 거리에서 괴물·악령 등 독특한 의상을 입고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축제 기간이 되면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미이라, 좀비 등 개성있는 의상을 입고 축제 현장에

나가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다. 광주에 거주하는 정한울(27)씨는 "핼러윈 축제 때는 거리에 나가지만 해도 재미있는데 주변에 온통 다양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해 사진 찍기도 좋다"며 "특히 이태원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핼러윈 축제 중심지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했다. 또 "핼러윈 축제 기간에 이태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다는 건 '나 이만큼 재미있게 잘 산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인기를 방증하듯 올해 광주에서도 핼러윈 테마로 꾸며진 행사와 축제가 쏟아졌다. 핼러윈을 앞두고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서구 상

무지구 등 유흥가 일대에서는 핼러윈을 상징하는 호박등 '잭 오 랜턴'(Jack O'lantern) 장식이 가게 곳곳에 걸렸으며 핼러윈 장식이나 소품을 팔거나 대여해 주는 가게도 부쩍 늘어났다. 지난 28·29일에는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열린 '남도달밤 야시장 축제'에서 핼러윈 특집 축제를 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핼러윈 분장을 하지 않으면 중앙광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음에도 1만여명이 몰려들었다. 광주관광재단도 이 축제를 포함한 핼러윈 특집 광주시티투어 노선을 편성했다. 또 조선대학교도 지난 27일 학교 축제와 연계한 핼러윈 축제 '로즈 스트리트 나잇 핼러윈'을 개최했다. /특별취재팀=유연재 기자 yjyou@



전국이 애도...양림동 아트마켓 취소
30일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열릴 예정이던 핼러윈 축제를 겸한 아트마켓의 현수막에 '핼러윈' 영문 표기가 가려져 있다. 축제 주최 측은 참사로 인한 애도의 표시로 핼러윈 관련 행사는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축제 취소·연기

다음달 5일까지 조기 계양...유사사고 방지 대책 회의 개최

광주시와 전남도는 핼러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1월 5일 국가예도기간까지 축제 및 각종 행사 축하공연 취소·연기, 조기계양, 추모리본 착용 등을 하고, 안전대책 점검 등을 통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상황점검 및 철저한 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광주시는 대인예술 야시장, 고싸움놀이 축제 등 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개최 예정인 각종 행사 축제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우리 지역 희생자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정부와 협의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실·국장들에게 "빈틈 없이 안전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30일 광주 동구청사의 깃대봉에 희생자를 애도하며 조기가 계양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도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이태원 핼러윈 축제 사고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도 차원의 애도를 표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애도성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며 "돌아가신 젊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받고 가족을 잃고 비통해질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할 기본적 가치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상위주의 안전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예정돼 있던 각종 축제·행사들도 애도의 마음을 담아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동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무등산 산신제'와 남구 '효덕동 동민한마음 축제', 스트리트 푸드존 내 '핼러윈 사회적기업 행사' 등이 취소됐다. 또 31일 계획된 '월산4동 동민한마음 축제'와 '봉선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착공식' 역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 서구 금호1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31일 오

후 7시 30분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금호동 먹자골목 EDM 축제'도 애도 차원에서 취소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도 각종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목포시는 11월 5일 예정됐던 '목포 해상 W쇼'를 취소했고, 11월 4일과 5일 각각 계획된 '부흥동 어울마당 축제'와 '통장 한마음어울림대회'는 잠정 연기했다. 무안군은 이날 '제2회 YD페스티벌'의 청춘 가요제, 버스킹 공연, 불꽃 쇼 등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명사초청 강연과 길거리 농구대회, 체험 프로그램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31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무안읍 노인의 날 행사' 역시 식전 공연은 취소하고, 기념식만 간단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영미권 전통 행사...분장한 채 마을 다니며 "간식 달라" 외쳐

핼러윈 데이는 어떤 날

고대 켈트족 새해 사원 축제서 유래 유럽인, 미국 이주하며 지금 핼러윈 문화 종교적 의미보다 분장하고 파티 즐겨 '핼러윈'은 매년 10월 31일을 기념해 열리는 영미권의 전통적인 행사다. 미국에서는 핼러윈 축제 기간이 되면 어린이들이 유령이나 괴물 등으로 분장한 채 마을을 돌아다닌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간식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trick or treat)"라고 외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또 호박에 얼굴 모양으로 구멍을 파고 등불을 넣은 '잭 오 랜턴'(Jack O'lantern)'을 비롯해 해골, 거미줄 등을 곳곳에 비치해 집을 공포스런 분위기로 꾸미는 풍습도 있다. 핼러윈의 기원은 고대 켈트족이 새해(11월 1일)에 치르는 사원(Samhain) 축제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켈트족은 이날 사후 세계와 경계가 흐릿해져 악마나 망령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 여겼으며,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고자 모닥불을 피우고 그 해 추수한 음식을 내놓았다. 또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이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귀신 분장을 했다고 전해

진다. 이후 8세기 유럽에서 가톨릭교회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 대축일'로 지정하자 그 전날인 10월 31일에 사원 축제를 이어갔다. 이날은 '신성한(hallow) 전날 밤(eve)'이라는 표현이 축약돼 핼러윈으로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축제는 중세 유럽에서 켈트와 가톨릭 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발전했으며,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원주민 문화와 결합, 지금의 핼러윈 문화가 만들어졌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핼러윈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축제로서 의미가 강해져 어른들도 함께 귀신 분장을 하고 파티를 즐기는 문화로 발전했다. /특별취재팀=유연재 기자 yjyou@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